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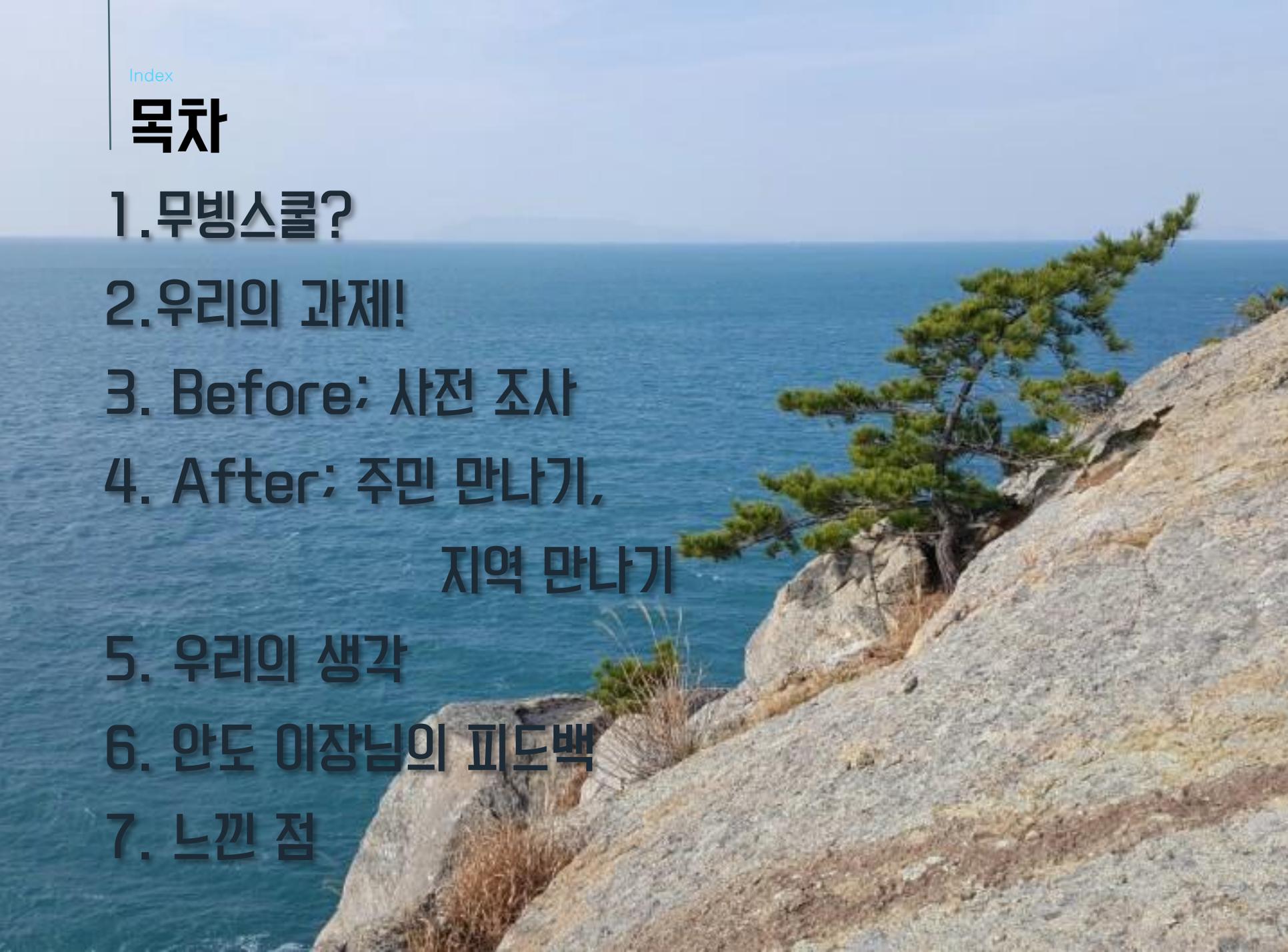


무빙스쿨 미얀마 양곤

허성주
송진우
박은정
이난희

목차

1. 무빙스쿨?
2. 우리의 과제!
3. Before: 사전 조사
4. After: 주민 만나기,
지역 만나기
5. 우리의 생각
6. 안도 이장님의 피드백
7. 느낀 점



Chapter.1

무빙스쿨 ?

우리가 직접 발로 걷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을 실제로
만나고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그 지역 공동체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우리의 과제 !

전라남도 여수시 안도 일대를 다니며, 직접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



우리는 안도가 '명품 섬'으로 변화한 기점이 안도대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일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안도대교를 기점으로 안도의 전과 후를 조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듣고 보고 느껴보기로 했다.

BEFORE) '안도'에 대한 우리의 사전 조사

-안도대교가 안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안도대교에 대한 키워드 셋.

하나. 관광 개발 사업 '명품 섬 안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관광사업 추진 사업으로 금오도 일대 섬들을 다리로 이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둘. 섬 유입인원 급증

이전에는 금오도만 찾아오던 관광객들이 안도대교를 통해 안도로 오는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안도로의 유입인원이 급증했다.

셋. 주민 생활 개선

다리가 놓아짐으로써 배편으로만 가능하던 육지로의 이동이 차로 갈 수 있게 되었다.

BEFORE) '안도'에 대한 우리의 사전 조사

-안도대교가 안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1박2일 동안 본 안도.

은정. 안도에서 지내면서 기억에 남는 건 산 속에서 잘 볼 수 없는 '영수증 쓰레기'이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실제로 본 '고라니'였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여서 안도를 관광 섬으로 보았을 때 개방하여 모두와 이 경치와 자연과 안도를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생겼다. 가이드해주신 김병호선생님도 언급하신 게 희귀생물과 같은 가치들을 공개하고 산 속에 울타리를 치느냐, 공개하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끝없이 존재한다고 하신 말이 떠오르면서 깊이 공감되었다.

성주. 대교가 생기면서 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쓰레기도 많아지고 육지의 삭막함이 섬으로 스며들어오려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섬 주민 분들에게는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르는 건데 우리를 마치 고향에 찾아온 손주들 맞이해주시듯이 반갑게 받아 주셨던 게 너무도 감사하다.

BEFORE) '안도'에 대한 우리의 사전 조사

-안도대교가 안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1박2일 동안 본 안도.

진우. 서울에서는 항상 바빴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해야 할 기분에 휩싸여있기 일수였고, 책상 위엔 언제나 읽어야 할 책으로 수북했다. 그러다 찾은 안도에서 찾은 안도의 2일. 날 뉘아매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간들. 어쩌면 안도(安島)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줄임말이 아닐까.

난희. 안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첫번째로 느낀 점은 할머니들이 참 많으시다는 점이였다. 또한 마을에 집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였다. 안도가 관광객이 많다고 했는데 관광객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여수시가 안도를 관광 특성화 섬으로 지정한 것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BEFORE) '안도'에 대한 우리의 사전 조사

-안도대교가 안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Before

안도대교가 생겨서 달라진 점

성유입연원 광!
주민생활개선

안도

안도도

우리가 1박2일동안 본 '안도'

- ✓ 영수증 쓰레기 : 고라니
- ✓ 安貧樂島
- ✓ 적은 수의 가구, 할머니, 할아버지
- 관광 활성화가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
- ✓ 고향에 온 것처럼 우릴 반겨주는 주민분들

나 방공
나고래
나 배
나 배

관객
배
사
모
의
전

15기

AFTER) 주민 만나기, 지역 만나기

—안도대교가 안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 걸음. 동네 둘러보기

직접 안도를 발로 걸어 다니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느끼기

두 걸음. 사람 만나기(인터뷰)

—우리에게 따뜻하고 푸짐한 진짜 집 밥 같은 식사를 제공해주신 '황금민박/식당의 사장님과 사모님'

—따뜻하게 손주손녀들처럼 반겨주셨던, 경로당 할머니들

세 걸음. 우리가 생각해보기

안도주민 분들을 만난 후, 우리가 생각하는 안도의 개선방안 토의하기

한 걸음. 동네 둘러보기

직접 안도를 발로 걸어 다니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느끼기



심상치 않은 브로맨스 기운..



길가다 만난 해녀아주머니!



급 시작된 안도바다투어 in 황금호



황금호의 주인, 황금용사장님

한 걸음. 동네 둘러보기

직접 안도를 발로 걸어 다니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느끼기



우리 눈에 비친 안도바다의 눈부신 모습



두 걸음. 사람 만나기(인터뷰)

-우리에게 따뜻하고 푸짐한 진짜 집 밥 같은 식사를 제공해주신
'황금 민박/식당의 사장님과 사모님'



캠보디아 팀과 함께 단체사진

인터뷰 내용

Q. 언제부터 민박집 하셨어요?

A. 원래는 사장님이 큰 어선갖고 물고기 잡고 먹고 살았는데, 98년 부터는 정리하고 민박집 차리고 안도 찾아오는 낚시꾼을 한테 방 빌려주고 배 태워주고 하다가 이렇게 민박집에 식당에 하고 있제. 우리 아저씨는 옛날에 소방대원도 했었어서 지금도 배가 있는데 마을에 급하게 병원가야되는 할머니나 밖에 일볼 때 택시처럼 구급차처럼 태워주고 그란다.

Q. 안도대교가 생기고 나서 달라진 불편해진 사항이 있나요?

A. 확실히 안도대교가 생기고 나니 관광객 수가 늘었제.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뭐, 대합실 앞에 쓰레기가 그득하드라.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을 그 앞에 다 뒀제. 그리고 원래는 안도안에 우체국이니 농협이니 관공서들이 있어서 일 보기가 편했는데, 금오도랑 연결되고는 금오도에 다 통합돼버렸다.

Q. 그럼 관광객이 많을 때는 얼마나 와요??

A. 올 새해 첫 날에 천명왔다 카드라. 민박집이 스무 개나 있는데 그게 다 찼제.

Q. 근데 그렇게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 이모들이나 할머니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A. 내가 다 한다. 아직은 계속 할 수 있제. 밥 시간에 바쁘면 사람도 쓰고 하지.

두 걸음. 사람 만나기(인터뷰) -따뜻하게 손주손녀들처럼 반겨주셨던, 경로당 할머니들



인터뷰 내용

Q. 할머니들 안도대고 생기고 불편한 거 있으세요?

A. (할머니1.2.3)우체국 직원도 발령나서 가불고, 출장소에 사람이 줄었다. 우체국도 곧 금오도로 넘어가분다 하더라.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불편하제. 일 보기가 힘들제. 근디 그거 들었나 그 우체국총각 마흔이 넘었는데 안주 결혼을 못했다카더라. (할머니2)요새 나이 그르게 어딴노 멀쩡하니 괜안트만 (할머니3)맞다맞다 누구는 오십넘은데도 아직 혼자다 사십이면 안주 젊은기라.....[의식의 흐름 기법 대화]

Q. 할머니, 여기에 관광객들 많이 와요?

A. 아 많체. 아 그 때 처녀들이 안 왔소 신년에 해보러 왔는데 처녀들이 잘 방이 없다해가지고 잠 잘 곳 구하드라 그래서 나가 경로당에서 재울라했는디 생각해보니까 허락을 맡아야 하자네 그래서 내가 못한다했제 (할머니2)그걸 왜 물어보소 우리도 경로당에 이불피고 자는디 둘인데 그냥 재우면 되제 와 보내요 (할머니3)그래도 부녀회장한테 말해가 허락을 맡아야제 작은거라도 얘기를 해야제.....[할머니어 해석불가/이마저도 진우,성주는 알아듣지 못했고 은정,난희가 나중에 다 해석해서 알게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이 후, 인터뷰가 아닌 할머니들과의 수다와 굴도 먹고 해드릴 게 없어 새해인사와 함께 안마를 다같이 해드렸다. 할머니들은 한 분, 한 분 다 덕담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저 그냥 안마였을 뿐인데 고마워하며 기뻐하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가보겠다고 하니 많이 아쉬워하시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찾아와 몇 마디 나눈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시던 할머니들의 모습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 걸음. 우리가 생각해보기

안도주민 분들을 만난 후, 우리가 생각하는 안도의 개선방안 토의하기

• 쓰레기

안도대교가 생긴 이 후 늘어난 관광객과 함께 안도 내 쓰레기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주민들 또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관광객들의 의식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포스터나 책자를 제작.

• 부족한 숙박 시설[열린 집]

안도 내 비어있는 주인 없는 집을 활용해 무인숙박시설을 세운다. 마을 공동체나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운영하고, 그 수익은 안도를 위해 쓰거나 주민들에게 분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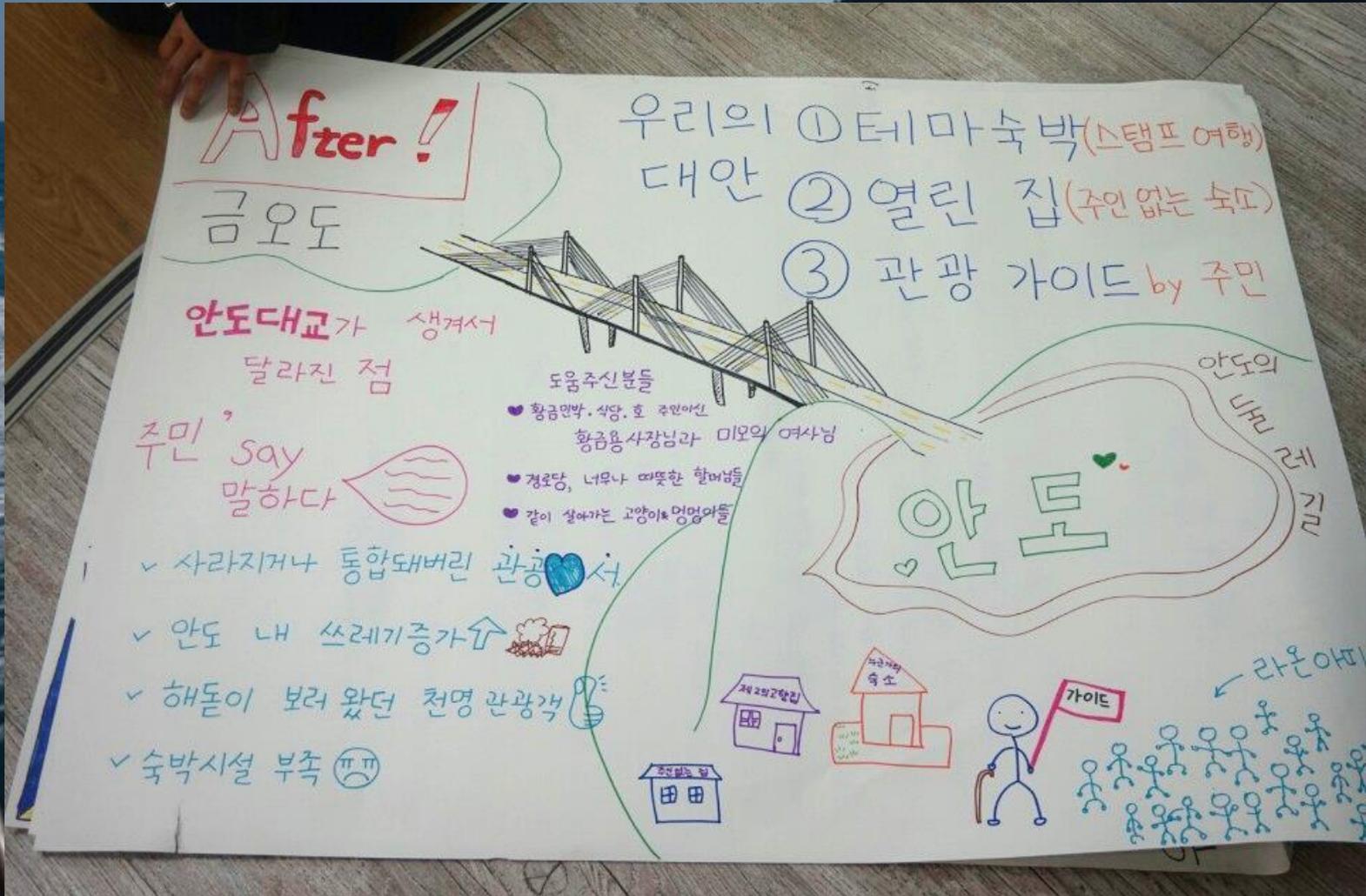
세 걸음. 우리가 생각해보기

안도주민 분들을 만난 후, 우리가 생각하는 안도의 개선방안 토의하기

- 안도 맞춤형 스탬프 투어[테마 숙박]
- 마을 공동체적 삶을 경험해보고 싶은 여행자들을 위한 안도 맞춤형 테마 관광. 예를 들면, 어른신들께 안마하기, 노인정에서 담소나누기, 방풍나물 따기 등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무료 경로당 숙박을 제공하는 등.
- 주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주민 가이드[관광 가이드by주민]
-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안도관광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코스로 개발하고 가이드하는 '주민가이드'를 새로운 직업으로 제안. 그저 딱딱하게 정보전달만 하고, 대단한 역사나 이야기들만 소개하는 기존의 가이드와는 달리, 주민가이드는 그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자신만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AFTER) 주민 만나기, 지역 만나기

—안도대교가 안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의 생각

안도에서 안도대교라는 변화가 시작된 이후, 좋은 부분이던 안 좋은 부분이던 안도에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했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관광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하여 '열린집', '테마관광' 등의 어떤 관광사업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관광지가 되면 흔히 외부에서 큰 자본이 들어와 그 지역의 관광수입을 다 가져가고, 주민들을 관광명소지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안도 주민들이 스스로 관광사업을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안도 이장님의 피드백

열린 집을 보수,공사하기 위해 드는 경제적 비용이 섬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3배 가량 더 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가 극명하게 나서 숙박시설을 더 마련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

또한 주민가이드도 주민들이 각자 생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느낀 점

- **은정:** '무빙스쿨'이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 나로서는 너무나 흥미로운 지역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들에게 대뜸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깨달았다. 경로당 할머니들을 만난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인데 그새 나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가 떠오른다.
-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서 이렇게 또 쉬운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안도지역의 문제를 직접 안도 안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내가 안도사람이라 착각하면서 내렸던 대안들에 대해 자신했고, 획기적이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장님 말씀을 다 들으면서 현실고려가 너무 안 되지 않았나 다시 내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다. 무작정 변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시도하는 것보다 먼저, 안도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토론과 관심이 한데 모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느낀 점

- 성주: 황금식당 주인 아저씨께서 직접 태워주신 안도의 수상택시가 떠오른다. 우연히 인터뷰 중 아저씨 소유의 제트스키 얘기가 나왔고 흔쾌히 우리에게 안도앞바다의 광활한 풍경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땐 정말 너무도 신이 났고 '땡' 잡았던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다를 가르며 파도의 거센 물보라에 내 몸은 소금물에 젖어졌고 차가운 겨울바다 바람에 내 몸은 얼어붙어버렸다.
- 이번 안도 무빙 스쿨의 느낌이 이와 같았던 것 같다. 처음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안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과 섬에 놀러 간다는 것이 너무도 신이 났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도 설레었다. 나에게 그거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다. 내 땀에는 젊은이의 감각으로 안도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러나 주민 분들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내 입장'에서 너무도 쉽게 다가갔었고,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해결책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차가운 반응만 있을 뿐 이었다.
- 어떤 일이든 그들의 입장에 녹아 들어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답을 내렸던 것 같다.

느낀 점

- 난희: 23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구, 지역에도 관심이 없었던 나인데 고작 2박 3일 지낸 안도라는 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조사하고 팀원들과 의논했다는 점에서 기분이 묘했다.
- 우리 팀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낸 대안이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들은 후, 그게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역의 역사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한 시간,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도 우리는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막막하기도, 두렵기도 했다.

느낀 점

- 진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을 수 있다니.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느낌만큼은 잊혀지지 않는다. 항구에 발을 딛자마자 들려온 지역 특유의 구수한 방송 소리부터 떠나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리주셨던 주름 잡힌 할머니들의 손길까지. 물론 라온아띠 멤버이기에 가능했던 경험이었을지 모르나, 여수 안도(安島)를 들으면 그 따듯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돈 많이 벌면 꼭 다시 놀러 와.”라고 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처럼, 언젠가 다시 안도를 찾을 테다. 과욕이겠지만 그때의 안도 모습이 지금처럼 온기를 간직한, 그대로였으면 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 ★ ★ ★ ★
Candy